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롯데갤러리·광주일보 주최 **나가이 가즈마사 전**

작품 속에 녹아든 디자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일본을 대표하는 그래픽디자이너이자 화가인 나가이 가즈마사(NAGAI KAZUMASA)는 '디자이너 예술가'라는 철학을 작품 속에 그대로 녹여내는 작가다. 그가 만든 포스터들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의 디자인에는 3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의한 경제적 측면, 작품이 던지는 사회적 측면, 그리고 예술작품으로서의 문화적 측면이다. 이 3가지 요소가 그의 작품 속에서는 균형을 이룬다. 근작들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예술적 가치가 균형을 뛰어넘는다.



나가이 가즈마사

광주 롯데갤러리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춘기획전시로 '나가이 가즈마사-생명의 변주곡' 전을 연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소장 고지마 히로유키)와 광주일보사, 롯데갤러리가 함께 진행하는 '일본 문화 페스티벌'의 첫 행사다. 롯데백화점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후원한다.

나가이 가즈마사는 끊임없이 스타일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는 1980년대 이전 작품에서 바다나 하늘 등의 공간을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최근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형상들을 다양한 모양과 패턴을 통해 선보인다. 동일한 형식의 패턴과 정형화된 디자인을 지양하며, 끊임없는 자기변화를 추구해온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역설하는 '동물들의 눈' 시리즈를 중심으로 일본의 전통미와 현대성을 드러낸 'JAPAN' 시리즈, '들새들의 알' 시리즈, 'LIFE' 시리즈 등 포스터 80여 점이 선보인다.

나가이 가즈마사의 오리지널 일러스트레

이션으로 제작된 '동물들의 눈' 시리즈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유머러스하다. 불가사의하게 그려졌지만 우아하고 화려하다. 작품 속 동물들은 관객들을 향해 장난을 치기도 하고 웬지 모를 쓸쓸함을 풍기기도 한다. 사람의 눈으로 표현돼 있는 동물들의 눈은 인간과 대등한 존재라는 점을 의미한다. 관객들을 향한 눈들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진다. 그 속에는 동양 철학에 바탕한 생명 존엄 사상이 깔려 있다.

'JAPAN' 시리즈는 금붕어와 꽃, 산, 달을 이용해 일본의 전통미를 나가이 가즈마사

21일~4월10일 신춘기획전시

'동물들의 눈' 시리즈 등 80여점

풍으로 완성한 작품들이다. 수작업으로 채워진 패턴이 소박함과 자유로운 모습을 선사한다.

2000년 초반부터 근작에 이르는 'LIFE' 시리즈는 '동물들의 눈'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한 문제를 고찰하지만 구성이나 표현방식은 다르다. 작품 속에서 활력이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창작은 항상 과파를 통해 자기 창조를 이룬다"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나가이 가즈마사는 도쿄예술대학 조각과를 중퇴하고 그래픽디자인을 시작했다. 1966년 삿포로동계올림픽 심벌과 오키나와 해양박물관 심벌을 제작했다.

한편 '일본 문화 페스티벌' 두 번째 행사인 '짧은 음악가 교류 콘서트'는 다음달 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오는 7월에는 광주극장에서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제'가 진행된다. 문의 062-221-180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SAVE'



'LIFE'



'JAPAN'

빛고을 국악전수관,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제44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등 8개 로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분야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

강의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 21일까지 3

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별로 20명 내외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마감은 오는 29일이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

지난 2002년 10월 개관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국악전용 공연장, 국악전수실, 국악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

관객과 함께 '힘내라! 한국독립영화'

광주극장 21일부터 3주간

'주리' '모래가...' 등 상영

23일 '지슬' 관객과의 대화



'지슬-끝나지 않은 사랑 2'

'힘내라! 한국독립영화'

광주극장이 21일부터 3주간을 '기운생동 한국독립영화'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영화 상영과 콘서트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영작 중 가장 화제를 모으는 작품은 '지슬-끝나지 않은 사랑 2'다. 제주 4·3을 소재로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했던 제주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극영화다. 영화는 지난 1일 제주에서 먼저 개봉, 1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슬'은 부산영화제에 이어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지슬 스님이 제작한 '모래가 흐르는 강'도 눈길을 끈다. KTX 천성산 터널 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지슬스님이 감독, 촬영, 편집을 맡아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고발한 다큐멘터리다.

4년 동안 내성천의 변화를 직접 기록해온 지슬 스님은 2011년부터는 내성천가에 살며 4대강 공사 현장과 그로 인해 훼손되고 변화하는 자연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

장의 감독 데뷔작인 '주리'도 관객들을 만난다. 다섯 명의 영화제 심사위원의 영화제 수상작 선정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안성기·강수연과 영화 평론가 토니 레인지가 출연한다.

그밖에 2012 서울독립영화제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은 이정훈 감독의 첫 영화인 '반달곰'과 무료했던 수동의 일상에 등장한 미스진과 그 친구들이 만들어가는 유쾌한 신(新)가족 탄생기를 그린 '미스진은 예쁘다'도 상영된다.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23일(오후 4시 영화 상영 후)에는 '지슬'의 오벌 감독이 이주빈 오마이뉴스 기자의 사회로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며 29일 오후 7시30분에는 포크 가수 인디언 수니와 함께하는 '힘내라 한국독립영화, 지슬 응원 콘서트'가 열린다.

또 제주 강정마을 평화를 지켜온 사람



'주리'

들을 인터뷰한 책 '구름비의 노래를 들려라'(글 이주빈·사진 노순택)를 추첨을 통해 선별한다.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전남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에 나선다.

전남문화재단은 '2013년 지역협력형 사업' 심사를 거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10건, 거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레지던스 프로그램) 6건, 남도 문화예술특성화 기

획사업 7건, 지역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301건 등 총 324건에 모두 17억3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5억3500만원이 투입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극단 갯돌, 순천필하모니, 장미영무단 등 10개 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원받았다.

2억4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주 예술인 창작 지원(레지던스) 사업은 목포아트센터, 상삼문화발전소 1839, 대담미술관, 도화현미술관, 무안분청자기협회, 잠월미술관 등 6개 단체가 선정됐다.

또 남도 문화예술특성화 기획사업으로는 '남도 유배삼, 문화기행 화집', '남도의 문화원형, 예술꽃으로 피어나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 여행길', '행복한 노년 문화나눔 캠프', '문화예술 전문기획자 양성' 등 5개 사업이 선정됐다. /김미은기자 mekim@

베토벤에 빠지다

피아니스트 동수정 독주회, 22일 금호아트홀

베토벤의 32개 소나타는 곡마다 각기 다른 스타일로 클래식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동수정씨가 독주회 레퍼토리를 베토벤 소나타로만 꾸렸다.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첫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중 가장 많이 알려진 14번 '월광'이다. 고요한 호수위에 비치는 달빛을 연상시키는 은은한 1악장, 강하게 몰아치는 3악장 등 피아노곡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두번째 곡은 베토벤이 자신의 은인인 발



트스타인 백작에게 헌정한 14번 '발트스타인'이며 피날레 곡은 23번 '열정'이다.

동씨는 전남대 출신으로 보스턴 음대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한 후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광주 피아노아카데미, CN피아노, 광주솔리스트양상을 멤버로 활동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지하 1,2층 할인매장 1,2,3층 이태리 가구 4,5층 모던,훈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1899-0240

SPACE 홍스페이스 TV 거실장 무료증정 행사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영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